

마치 마음은 드는 꿈이 빚깎
만 놓고 앉기가 있는 것처럼
공교로운 말도 이같이 행하
지 않으면 소독이 없다.
(法句經·화합품 10장)

발행인: 민수현
편집인: 김민준
주필: 김민준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제 1106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9
1955.10.15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9월23일 (수요일)

[1]

총동입회비 논란 해결국면

학교당국·대책위 합의사항 준수에 공동노력 해야

2학기 개강초부터 학내 상황이 총동입회비문제로 휩싸인 지 거의 한달여간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1일 교무위원회를 통해 대책수립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당국은 지난 21일 대학원 제1회의실에서 교무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철총장은 "대·장소·상황을 가리지 않고 학생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학교당국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학교당국과 중앙대책위의 협의의 결실을 통해 중앙대책위 4개항의 조속한 이행 및 총장의 공개해명 등이 이번 문제해결의 최선책이라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대책위는 지난 18일 학생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입회비 최종공개협상 및 민중총동 중흥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총장의 합의문 공표와 해명으로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표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위측에서 요구한 총장의 공개해명이 이뤄지지 않자 급기야 대책위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 농성 6 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학교당국과 대책위 간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88년 지급동결된 총동입회비는 총동에 요청, 환수조치 △환수된 총동입회비는 학교발전 기금 또는 장학기금으로 쓰여 이를 위한 적정기구 구성·운영 △상반기의 인적구성은 학교당국, 학생대표 각 2인, 88년 동결주제대표 1인으로 하고 9월중으로 운영개시 △2학기 수납된 총동입회비는 총동합의 하에 오는 28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환불조치 등이다.

사실상 이번문제에 대한 학교당국의 입장은 문제발발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한후 추후 대책위의 구체적인 논의의 틀 통해 해결점을 찾을 방침이다.

중앙대책위가 지난 18일 집회석상에서 학교당국에 요구한 '총장의 공개 해명'이 지난 21일 교무위원회에서 정식 거론돼 향후 총동입회비문제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학교당국은 교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대책논의 끝에 총장이 "대·장소·상황을 가리지 않고 학생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공식 표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이번 문제의 해결방안이 총장의 공개해명, 대책위원과의 합의된 사항을 하나하나 처리해야



△대책위는 지난 18일부터 총동입회비와 관련해 총장사택을 요구하며 총장실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다는데 교무위원들이 공간대를 형성한것으로 비쳐진다.

이와같은 결정사항이 나오기 까지 절치부심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교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대책위측에서 "학교당국의 이번문제에 대한 성실한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대화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오는 24일을 전후로 대화의 지리가 속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문제에 대한 일련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는 학내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적인 학교 이미지가 실추, 대학정치의 마비 등을 지적해 이부분에 대한 정상화의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학교·대책위원과의 지리가 이뤄지지 않는데에 대해 최순열(국어교육) 학생처장은 "지급까지 수차례 걸쳐 논의를 해왔지만 밀방에 걸려있는 불신의 폭이 의외로 끈기 있어져서 '점'이라며 지금까지 논의에는 심경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문제의 해결은 팽팽한 견해차로 인한 공방을 최소화하면서 한단계에 걸쳐 전개해나가는 것을 마무리한다는 기조이래 학교·대책위원들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게 이를 지켜보는 학내구성원들의 공통적 견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 수차례 걸쳐 논의를 해왔지만 밀방에 걸려있는 불신의 폭이 의외로 끈기 있어져서 '점'이라며 지금까지 논의에는 심경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문제의 해결은 팽팽한 견해차로 인한 공방을 최소화하면서 한단계에 걸쳐 전개해나가는 것을 마무리한다는 기조이래 학교·대책위원들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게 이를 지켜보는 학내구성원들의 공통적 견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백상제전 '동악사랑 92' 개막

오는 29일부터 3일간 교내일원서

서울캠퍼스 제24대 총학생회 주최 2학기 백상제전 '제전/동악사랑 92'가 오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교내일원서 다양한 행사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날(29일)은 양수수 안재구선생 장영화가 중앙당에서 열린다. 안재구씨는 79년 남민전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복역한 바 있다.

오후5시에는 총학생회 여성부장 손주연(교육4) 양 사회로 개막제가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또한 둘째날(30일)에는 만해광장에서 에어로비시합이, 중앙당에서 영화상영등이 이어진다.

이번 제전 기간중 각종체육대회가 대문동장의 만해광장,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민중진영단일정당추진위원회와 본교

민중어머니회공동주최의 주제가 펼쳐도 주위에서 펼쳐진다. 마지막날(1일)은 오후5시부터 동악인 '진기령기'자랑대회가 불상 앞에서 개최되며 오후 4시 폐막식 '범동악인의 밤'이 만해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동악인의 밤'에서는 김늘이 및 동문선배연예인들을 초청,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한 마당을 연출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기간중 다량관람객을 생생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목욕탕 물품교환시장이 개장된다. 이번 물품교환시장에서는 학생들이 가져온 물품을 전시된 물품중 필요한 것과 교환할 수 있으며 행사후 남은 물품들은 양로원, 코아원등에 기증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92 백상제전'은 오는 10월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공인회계사 2차 합격 김경훈의 4명

공인회계사(지도교수=한진수·회계학)이 지난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27회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에 본교 학생 김경훈(경제4) 군을 비롯 4명 동문4명이 합격했다.

총 2백50여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 재학생 김군은 우수한 성적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본교는 종합성적 전국 10위를 차지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성일(경제 4) △신동욱(회계 4) △남태연(회계 4) △강요식(대학원 회계학과 1) **교수회**

서울·경주 대의원회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경주 제1회 합동 대의원회의를 갖는다.

지난 8월18일 신임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이후 9월 현재 각 단과대 대의원들이 구성이 완료되면서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이날(26일) 오전 11시 1차로 교수회의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가진 후, 오전 1시 다량관람객 식당에서 제3대 교수회 운영방안과 사업계획 회의, 신임 교수회 임원 선출에 동을 안건으로 서울·경주 합동대의원회를 진행한다.

단과대학 선거일정 확정

총대선거 내달 15·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연기결정된 총학생회선거를 제외한 92년도 단과대 학생회 전체 선거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선거 일정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각 단과대학 선관위가 꾸러지게 되어 오는 29일에는 단과대 선거일정 공고, 다음달 6일 후

보사 등록마감, 9일 공보부착, 20일부터 27일까지 각 단과대별 정에 맞춰 투표 진행 마감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제25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선출은 오는 10월 15일 대의원 총회와 함께 투표가 실시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사 등록마감, 9일 공보부착, 20일부터 27일까지 각 단과대별 정에 맞춰 투표 진행 마감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제25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선출은 오는 10월 15일 대의원 총회와 함께 투표가 실시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선위 총학선거 내년 3월로 연기

학생회 차원의 충분한 의사수렴 미흡

제25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7일 꾸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성원·경의4, 이하 중선위)는 이날 총대의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총학생회칙 제95조에 의거해 총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중앙위원 중 10명과 중앙위원에서 위촉한 10명으로 구성된 중선위의 총학생회 선거일정 결정은 구성당일인 이날 안건 상정, 논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의결된 것이다.

선관위원 선장자 20명중 17명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중선위장 김근의 발의로 제기된 투표 결과 연기 찬성 11표, 반대 6표로 결정됐다.

중선위는 안내문을 통해 연기 사유를 예년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선

거문등으로 전락하고 학생회 활동 미비상태를 조래한 것에 비추어 올 12월 대통령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사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회 체제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연기로써 생기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공백기간은 제25대 총대의원회의 장과 오는 10월중으로 선출되는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대표 1인을 호선, 공동 운영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대체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결과에 관해 총학생회 회칙 제94조 '선거의 시기'항 중 1항인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라는 조항과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선위 구성당일 총학선거를

연기결정한 것은 학내 학생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이 없었다는게 크게 지적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관련 중선위는 학생회칙 제107조 7항 선거의 중단 및 연기 에 관한 중선위 고유의 권한을 내세워 절차상 무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학복위 우정장학금 지급

총54개학과 1천8십만원

학복위(위원장=권혁선·일화4)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92학년도 2학기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

3차례의 단위복지주체 연석회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우정장학금은 지난해까지 학복위에서 선별하고 관리하던 방식과는 달리 올해부터 각과·단과 학생회로 위임 되었다.

따라서 법대는 근로 장학생에게, 사법대는 우정장학금 수여 대상자중 특별한 한명을 수여, '학복 위용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등 각 단과의 특성과 역량에 맞게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학기 우정장학금은 총 54개학과에서 선별된 각과 1인당 2씩만한, 1천8십만원이 지급된다.

인류의 오랜 정신사적 경험은 인간의 사상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 자유의 영역이 얼마나 다양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불교가 발생한 무렵인 BC. 6세기경 인도에서 유행했던 한 사상경향으로서 로카야타도 그 중에 한 가지이다. 당시 정통적인 브라흐마니즘의 권위에 도전한 일단의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하였고, 그 중에 한사람이 로카야타사상경향을 '로카야타'라 부른다.

우주와 인간과 사물의 근원을 브라흐마에 두었던 바라문교와는 달리, 이자타는 물질적 요소만이 실재한다고 보고 그것만을 진리로 인정

하고자 하였다. 그는 철저한 유토피아였으며 생의 가치를 쾌락의 추구에 두는 쾌락론자의 입장에서 있었다. 따라서 인정하는 인식은 오직 인간의 감각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 목표였던 이들은 로카야타(Lokeyata) 즉 순세파(順世派)라고 불리는 것이다. 현재 [世]에 모든 의의를 두고 있다[世]는 뜻이다.

우주와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던 모든 사물과 생의 가치를 어떤 각도에서 파악하던 그것은 오로지 그 자신의 사상적 자유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되고 파악한 내용을 표현하고 행동

하는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과서적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오늘 의 대학문화를 생각해 본다.

평한 지적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참신성도 사라진지 오래고, 다양성 없는 혼란뿐이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는 일련이 인류에 의해 경험되고 비판, 반성되어온 로카야타의 사고와 행동양상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뿐이다. 사상적 없는 일회적 사고의 유행, 상업주의적 소비성향의 민연, 사치와 방종, 심지어 이른바 퇴폐문화의 오염에 이르기까지, 대학문화는 가히 로카야타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대학은 다양한 사상과 행동과 그 표현이 앙동하는, 무한하게 열려진 공간이다. 그렇더라도 이미 낡은 사상경향까지 은근스케아할 필요는 없다. 로카야타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李 逢 春

수습기자 모집원서 오늘(23일)마감

기쁨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될 때입니다. 기쁨이란 당신의 영예를 차지하였기 때문이요, 미안함이란 실력과 능력이 없는 나에게게는 과분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미안함도 앞서 한 가지 깊어 느끼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앞으로는 수습을 하거나 그것을 실천할 만한 용력(勇力)을 가진 것인지 내자신 의문스럽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싶다.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게끔 끊임없는 격려와 충고를 보내 달라고 또한 교수님들은 끝없는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나도 모든 힘을 다하여 실천할 능력과 실력을 기를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차체에 부안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을 계기로 동국의 트레싱스 운동을 학교당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으켰으면 한다. 오늘의 당상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친구와 교수님들의 힘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며 만족보다 스스로 책임감이 앞서 걱정스럽다. 앞으로 동대신문사의 이러한 활동은 신학풍의 전위역할을 하겠다고 청찬하고 싶다. 심사위원 교수님과 동대신문사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사를 올린다.

<제1회 학술상에서 '한국민주주의의 확립'해 논문으로 인문사회과학 본상을 수상했던 유광진(철외) 교수의 당시 수상 소감>
본지 244호·63년 11월8일자 인용

동국, 新 르네상스 운동?!

제30회 학술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모요령
분야별 2백자이고지 60매 내외의 분량으로, 개인·공동연구 모두 가능하며 소속 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술논문이어야 합니다. (제출된 논문은 반환치 않으며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본사 소유임)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응모기간
1992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논문제출처
서울: 본사 총무부(학생회관 옥내지하)
경주: 본사 편집부(학생회관 2층)
<문의: 서울 260-3491·2, 경주 41-4132>

시상내용
각 분야별 ●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절대 평가 원칙에 의해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발 표
당선자는 개별통지하며 당선작은 1992년 10월 27일자 본지 지상에 게재합니다.

동대신문사

역광장 가득 메운 토론 열기

시민·학생 자유의사 펼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지난 6월 우연히 신평동역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민·학생 대토론회'라는 자리였는데 장만 함께 했음에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 이후에도 그곳에서 토론회가 계속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까운 정량리에서도 또다른 학생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기에 썬을 내어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것은 '열린공제'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정량리였기에 매우 시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도 되고 열기를 더해 갔다. 시민들과 몇몇 학우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비웃으며 적기도 하고 하자보다도 얘기를 붙이는 등 많은 준비가 이루어진 토론회였다. 시민들은 처

음엔 부척 생소해 했고, 유심히 지켜보거나 그냥 지나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한 젊은 회사원을 시작으로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보다는 시민들이 발언의 주류를 이뤘다. 노동자, 교사, 아주머니 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식습관이 앞에 나오는 모습에 나는 내심 놀랐다.

이날 나온 얘기들은, 경제가 안정된 이후의 통일, 휴식도 잘 살게 된 이후 대동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었다.

그 이외에도 시민들은 열심히 읽히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거나 주위의 휴지나 안습은 대학생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데모에 관한 생각, 토론회에 대한 느낌, 대학생에게 바라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했다.

주체적인 사고로 '종말론' 극복해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작가이면서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인간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간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필치지 않았다면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에서, 광주사태, KAL기 피격사건, 체코노비, 오대양, 동·서독 통일, 동유럽의 변화, EC의 통합, 걸프전쟁 등 일련의 혼란한 상황속

에서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들, 그리고 죽음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종말론'에 대한 강박관념, 인간들의 부대림살이를 꿰고, 가장이 직업을 버리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뭇잎이 흔들리면 반드시 바람이 불다

교내 도난사고 근절시급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이 조그만 학교내에서도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학생들의 교복수단인 자전거를 가져가는가하면 학생회관내 한 자치기구에서는 선거운동까지 도난당했다고 한다.

그런 또 그렇다치고 우리 학우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도서관 열람실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남이 애써 정리해 놓은 노트까지 집어간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러한 일의 원인을 분담당한 당사자의 부주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이기주의의 성향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도서관에서 노트북 기타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것이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의 핵심인 도서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공포와 조바심의 장소가 되게 해서야 되겠는가.

매일 많은 학생들이 드나들고 학교에 불타 열기를 뽐는 도서관에서 좀더 독들이 선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장난이든 고의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는 스스로 자상, 나쁜 버릇을 근절함으로써 주변인에게 진정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대학원으로서 친구들의 수고와 노력의 댓가를 그늘 가져가는 이런 일만은 없기를 강조하는 바이다.

한 기영 <야간강좌 무역학과>

영화 '가슴에...' 조감독 김선영 (농학 91졸) 동문



"숨겨진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며 절박하게 영화제작의 길에 들어선 그때 당시의 소박한 열의를 밝히는 김선영 (농학 91졸) 동문.

김동문은 단연코는 상업주의와 틀에 끼얹듯한 경직성으로 일관해 온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리얼리즘의 시도를 보여준 영화 '가슴에'를 칼로 슬픔을 자르듯에서 스크린 터져 조감독을 맡았다. 영화 시사회까지 마친 김동문은 개인적으로 출품한 16mm 영화와 새로운 작품제작에 들어 가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공과 무관하게 영화계에 발을 내딛게 된 김동문은 "학창시절 알파카 감독의 'The Wall'이란 작품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그 영화는 저에게 영감이 주는 힘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더군요"라며 영화제작에 첫발을 내딛게 된 시연을 토론했다.

후로 정진없이 영화촬영장소를 따라 다니고 나름대로 틈틈이 그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번 영화 제작일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삶에 배어있는 진솔한 얘기들을 영상에 담아내 관객과 함께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김동문은 자신이 그려온 영화제작적인 자화상을 조심히 레 내보여주었다.

< >

지난호 독대신문을 읽고

참신한 사건 접근 방식 필요

지난호 시사논단은 새로운 각도를 보여주는 신선함이 부족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6공발기의 대규모 국제사업 발주에 대한 의문제기는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방면으로 표출돼왔다.

그런데 지난호에 게재된 시사논단에서의 일련의 사건 접근근태는 그런 의혹과 의문들을 6공의 총체적 부패의 일면으로만 묶어내기위한 어설픈 접근을 보였다.

연일 일간신문 사설의 단골메뉴로 등장한 이사업들의 의혹부분은 언제나 일관된 경로를 통해 간단히 정권발기의 특수현상으로 결론지어 버려나왔다.

야간강좌 지원금 축소 결정 유감

나는 야간강좌가 총학생회라는 체계를 가짐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야간강좌 학생이다.

많은 인원과 계열의 차이, 다수의 직강인 학생들을 운영하고 대중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하지만 1만 동과 또한 이러한 야중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특별 지원금의 배려로 야중의 심적, 물질 보탬이 되어왔다.

지난 90년 전산학과, 산업공학과가 폐지되었지만 야간강좌는 내년에도 정보관리학과 신설에 기존 과수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야간강좌 총학생회'라는 체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총대 의원의 논의가 지난 91년부터 가시화돼 2개학과 폐지를 근거로 올해부터는 거세게 주장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특별 지원금이 학기당 50만원에서

대자보 분석

12월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폭탄기 민중후보추대 의견 개선

12월 대통령 선거가 성큼 다가오자 학내에는 현 여권의 부정선거 의혹 폭탄기, 선거 방법의 의견을 개선하는 성격의 대자보가 많았다.

'우리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동아리연합회에서 발인 대자보는 전 연거군 군수 한준수씨의 양심선언으로 다시금 밝혀진 정권의 '인기부 주조, 내부부

기계로 전락시켰던 선거가'라는 제목은 자유로운 정치사상 및 정권교체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방법 의견으로는 '민중대통령 추대를 위한 학생추진 위원회'명의 대자보가 눈길을 끌었는데, 87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별의 기로에 선

동문/칼럼

지난 5월 경주캠퍼스 소강당에서 상영된 영화 '단한 교문을 열며'를 보러 갔다. 오 후3시, 소강당 2배여 좌석은 반도 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된 주막거리의 뒷부터 호수까지도 붐비고 있었다.

80년 입학한 나는 그 잔인한 5월에, 내 동문과 광주에 이 고향을 당하고 있을 때 설악산에서 한껏 젊음을 만끽하고 있었다. 후에 그일을 알았을 때에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닌 친구와 함께 막걸리와 더불어 소위 대학의 낭만을 구가했다.

졸업후 교사가 되어 중·고시절 나에게 가장 많이 매를 들었던 선생님을 떠올리고는 그것이 학생에 대한 최선의 사랑인양 시간마다 매를 들고 목에 띠대를 올렸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학생은 공부밖에 없다. 훗날 출세를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

동문/칼럼

어가가 한다. 지금 너희는 나를 욕했었지만 훗날 나를 가엾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매를 걸려와 하며 시간마다 학생들을 전정터로 내몰았다.

이런 모순된 교사생활을 하던중 89년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어 선생님과 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부끄러웠다. 참으로 부끄러웠다. 이 땅의 교육현실이 얼마나 모순에 차있는 것이지를 알았고, 내가 밟고 행했던 교육방법 또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무조건적인 열정과 의욕 앞세우고 눈앞의 성과만을 추구했던 나의 교사생활 3년을 철회하는 마음으로 전교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곧 무소불위의 권력앞에서 나는 자서를 써야했고 또한 현실적인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날이후 나는 가슴속에 시퍼런 응어리를 키우며 아

낭만이 이 땅의 현실은 아니기에

이들에게도 심어주었는지 모른다.

올해 6월21일 현직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 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구를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번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성교육이 아닌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현하라. 또 해직교사들 교단에서 헤리라' 다짐하며 서명해

게 서명철회까지 제출을 강요당했고, 몇몇 교사들은 경 고장을 받았다.

생존권을 박탈당한 동료교사들을 복직시키고 황폐화된 교육의 모순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현직교사들의 순수한 열정을 '정당행동'이라는 명목으로 또 정권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미 전취위 위원장 김중영 선생님을 비롯 한 시·도 위원장은 정계가

목욕골

- 경천아 / 너의 스무번째 생일을 진작진작 축하한다. 멋진 축하가 되길 바란다.
- 축하합니다 -너의 친구 정도가 9월9일에 태어난 아티스트 생일 축하합니다. 석현이, 홍수, 우정인, 민학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손자사립회 선미·숙진이가 축제를 정기담사를 발간하고 무사하게 다녀온 것을 축하합니다. 92 동기를 축하합니다.
- 92축하 -92축하 / 정민·정인 등이 현주 학생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수고 92학번일동
- 축하합니다 -뜻깊은 생일 축하한다. 성현아 / 너의 앞날에 행복과 기쁨이 풍만하길...
- 원동과 영문과 일동
- 무역학과 92학번 최정현의 추억 연구실 인사를 환영합니다. -무역학연구실 92일동
- 산업공학과 정숙연, 결혼을 축하드려요
- 89정민이가 -제1회 말갈살이 시화전을 축하합니다.
- (09)영문과 일동
- To예숙이, 생일을 축하한다. 항상 건강할 모습과도 같이네라. -구토도가 남자
- 새호주(?) 언제나 웃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질척대꾸할 일없이하고 생일 축하한다.
- 일문과이벤트92학번 일동
- 김승주 왜 태어났니? 아니야 진짜 진짜 생일 축하해.

동문/칼럼

- 자금조성식의 관권선거를 비판한다
- "가공연연 기업의 특정 후보 지지와 자금지원등의 정경유착이 만연된 금권선거. 개인인담과 악성부패를 이용하여 정치보다는 다 후보를 비방하는 흑기선전 행태를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민중을 표적해
- 자금조성식의 관권선거를 비판한다
- "가공연연 기업의 특정 후보 지지와 자금지원등의 정경유착이 만연된 금권선거. 개인인담과 악성부패를 이용하여 정치보다는 다 후보를 비방하는 흑기선전 행태를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민중을 표적해
- '범민주 단일 후보론'이나 '민중대통령후보 추대론'으로 대선에 대한 방향이 크게 나타나 있는 현 상황에서 후자쪽의 의견을 가진 정치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듯하다.
- 어른매체부**
- 교육학과 일일HOF, 9월 25일 A.M. 10시부터 P.M. 10시까지 합니다. 모든인을 대환영.
- 불교학생회 작품모집입니다. 마음껏 교문 불교인 여러분 많이 힘써바랍니다.
- 불교학생회 출판부장
- 현연을 제11회 정기공연이 성공리에 끝나길 바랍니다.
- 상병사7
- 국립고 성실한 사람구함, 자격은 아무다움에 관심있는 분들 모두, 연락처는 학과3층 민중미학연구소, 밑하는이는 지금 후배한테 혼나고 있으며 3년동안 다리가 끊어진 소강 캠퍼스연구회에서는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계산관 2층에서 제8회 프로그램 전시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많이 보러오세요
- DUCA
- '철학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버렸습니. 습득하신 분은 철학과 화회소로 가져다 주세요.
- 철학과 2년 오홍명
- 부산의 자존심 부산 배고고등학교의 사상 첫 동문회에 동대인들의 열면 성원을 바랍니다.
- 무역 92학번
- 모집합니다. 의욕과 신념을 가진 강학을 찾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아학에서 우리의 노동자와 진솔한 단담을
- 신당아학, 연락처 : 236-3799
- 91학번 꼬마미화
- 동태페(D.U.T.C) 최 규환(훈민차장)생일을 축하한다. 아 임미/정 태어났다.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 11기 일동
- 잠룡/귀해진날 잠적을 감춘 못된척 추구하고 파비 가지고 든 거야나? 우짜던중 축하한다.
- 前全科代
- 일일다
- Youth-J.C 인이어 오는 25일부터 2박3일 동안 추계 L.T를 갑니다. 많은 참여가 있기를...
- Youth-J.C 회장
- 춤서 M.T가 9월25일-27일에 있습니다. 장소: 장안사, 일랑
- 국사학과 1.2학년 당사 떠나요 모두 건강히 잘 다녀오길...
- 92예뻐이들
- 동진아/군대 잘 가라. 아재해진 짙은 머리를 보고 싶다.
- 91무역 김형욱
- 민중 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민원회 사업을 시작합니다. 민중 세상을 앞당기는 데 작은 정성을 보태고자 하시는 분은 철학과 학생회실에서 담당자를 찾으세요.
- 민원회 모임 대표
- 일일시합사
- '92 수고와 하마'항상 웃는 얼굴로 모두를 대하고 네가 말했듯이 너도 할내렴 / 우리 좋은 학교 생활을 하자.
- 내 친구 누구?

온방골

- 축하합니다
- 예쁜 영화의 생일을 축하한다. 도는 알거야.
- 수고과 개구리, 영심이, 광배, 두꺼비가
- 순송이형 /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많이 환하게 비추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려주세요.
- 강일
- 제1회 동북 졸업작품전 성공적으로 끝나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시립하는 선배님들의 영원한 명목 파트너 재학생 일동
- 동동학아 군대 잘 갔다와라 / 범수가 생일 축하한다.
- 中文
- 선희의 생일을 다함께 축하합니다.
- P.P.Y.P.치기회
- 이 좋은 가을날, 너의 생일 이래며? 생일 축하해. 한 근, 정말 푸, 입만 앞으로도 우리 조주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몸과 마음을 버쳐 충성을 다 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조희의 큰 손들(김지익, 김 썩이 등등)
- 저타가죽, 팬다가죽이 함께 생일 축하해 / 순송이형의 28번째 생일일.
- FAMILY (Toefi)

-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괴사로 남아 방황하고 있는 데 또다시 정체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계의 갈등과 상처를 더욱 깊게 할 뿐이다.
- 는 다짐한다. 오늘도 아이들의 조롱조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만은 내 가슴속의 응어리를 흘려주지 않으려고
- 나는 믿는다. 해직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서는날, 풍풍이 아이를 새책이 다시 들어
- 우배여러분 /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어느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 이렇게 진정한 민주화가 꽃필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 혹은 모든 여러분은 저의 철없던 시절을 담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가?
- 김 익
- (경주 전교조 지부장·교사 84학)
- 배상체전에서 우리1학년을 선배님들께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한번 보여 줍시다.
- 경명(OH) 터미네이터
- 백상은 우리풍으로 자주 상경대 회계학과에 체전 우승을 위해 열심히 힘차게 합시다.
- 회계학과 학생회
- 예정된 일이었다. 그것은 백상 체전이 끝나는 날이다. 일찌기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참았다. 백상체전 우승합시다.
- 경명학과
- 그리고...
- 경명고 4학년 김중 선배에게 띄우는 가을낙서 '가슴이 들어가는 남자' '출렁거 해선 안될 남자' 그에게 하고싶은 말은 '물구나무 서기도 가깝하'.
- 1학년 어엿한 후배가
- 백상체전을 위한 모듬. 언제 내년 24일 오후5시 학생회관 풀밭 첫번째 모듬나무 밑에서 모이자.
- 유경아 / 너 대체 누굴 보고 있는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있는데...
- T.O
- 그리고, 내게 띄우는 무언의 메시지 9월부터 원효관 중정에서...
- 시선의 대모
- '한상수' 시리즈 I탄 그는 왜 회회장이 되어야만 했는가? 침몰해 가는 회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부패를 꿈꾸는 구심점으로 우뚝 서우기 위해? 아니야. 할 사람이 없어서였다.
- 곰장학사 노거리
- 우리의 귀여둥이 광둥이가 장학금을 받았대요 (우와...) 광둥이를 아시는 모든 분은 모두 주세요. 아마 경제학적으로 돈을 풀테니까요. p.s 2만원 값이라
- 더 큰 장학금을 탈수있는 강아지

제2의 입시 취업 그문제와 대책

동문과의 유기적 협조로 활기 모색해야

1) 심화되는 취업난과 대책

취업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대학의 기능에 대한 여러 시각이 엇갈릴 때다. 경영합리화, 경기침체 등으로 각 기업은 이미 인력감축조치를 취하고 있어 올 하반기 취업난은 근대 들어 최악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취업대책의 문제, 대기업 채용방식의 변화, 여대생 취업난 등에 관한 글을 실음으로써 졸업생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의한 직원감축, 경영합리화 바람에 다 올해 경제상황이 근대 최악의 상태라는 배경에서 비롯된다. 또 각 산업분야의 수입개방도 신규채용 감소현상을 부추기는데, 금융개혁 경우 금융시장 개방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처하고자 각 은행들이 '군살빼기' 차원의 인력감축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일본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올해 처음으로 각 기업의 채용인원감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학력 취업난

고학력실업의 심각성은 대학졸업자의 전반적인 공급과잉 속에서 여대생 취업난 △인문·사회계 등



지난해 취업과 독립부서 승격은 동문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취업자료실 내부 모습)

고학력 취업난, 대학 정원정책에서 기인 기업의 인턴제 선호로 비인기학과 취업난 심화

비인기학과 졸업자 취업난 △비명문대 지방대 졸업자 취업난에서 잘 나타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고학력실업은 구조적실업의 형태를 띤다. 즉 직종이나 지역간 노동력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노동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이다. 이는 인문계대졸업자의 극심한 취업난과 첨단산업부분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난이 공존하는 현상에서 입증되는데, 이는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어 온 그간의 대학정원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고학력 취업난의 문제는 많다. 인턴제, 서류전형 등을 통한

공채방식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비명문대, 지방대, 비인기학과 졸업자가 취업난을 가중시킨다. 91년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각 기업은 신입사원채용에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순으로 선발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의 평가요소로는 학교성적(53.6%), 학력 및 전공(23.7%), 학교수준(20.6%) 등을 우선순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비명문대 비인기학과 졸업자는 마땅히 갖지 않는다'는 말은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잘 나타낸다.

취업과 한 과제자는 "종합성적 B(3.0) 이상이 안되면 서류전형에서부터 탈락"이라며 "취업준비는 이제 더 이상 '벼락치기'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입을 강조한다. 또 대기업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한 동문은 "승진이나 상사의 대우를 보면 '꼬리 지원부대'가 없는 것이 큰 난관"이라며 "대학생활이 전적으로 취업의 준비기는 결코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을 전혀 등한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학의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교 취업대책의 문제

이같은 '취업전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취업담당 관계자들은 "취업준

대학생활을 마감하는 4학년생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에 하나 되는 '직장구하기'가 될 것이다. 2학기 들어 본격적인 취업시즌이 열리면서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 남의 일 같지만은 않다. 경기침체와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기회 창출을 줄이고 있고, 특별전형에 의한 입도선배(立候補先), 지난해 취업준비생까지 가세

주고 있는 통치이다. 한편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취업이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건들을 따지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좋은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될 사항이 취업정보 활용이 될 것이다.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서도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채용시각, 자격요건, 전형방법, 기업규모구조 업무특성 업종 발전

취업상담실

① 취업준비

"평생 몸담을 직장" 의식 가져야 취업정보 활용...신속대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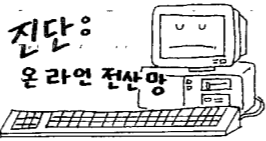
해 취업전쟁은 어느때보다 어두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취업난으로 인해 우선 아무작업이나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평생 몸담고 일할 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인 된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조사가 따르면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조건으로 월급보다는 직장회사의 성장·발전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기업들이 지금까지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는 긴 안목을 가지고 선택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나 외국어의 경우는 듣고 말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면접도 2중 3중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희망자가 어떤 직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서, 직장을 잡을 때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카드로 작용되고 있음을 본다. 이렇듯 취업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이르기 위한 준비 및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장 선택에 있어서는 늘 이야기 하지만 '첫단추'가 중요하다. 대학이 취업준비를 통한 개인적인 보람,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을 누리는 사회진출이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

신관호 <취업개황>



본교 서울캠퍼스 행정전산망은 90%까지 실용화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망 프로그램은 많고 시설은 낙후 21세기 준비할 예산마련 급해



1) 현황과 문제

흔히 21세기를 '정보통신시대'라고 일컫는다. 변화가 가장 빠른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인간간의 사고능력을 제약을 넘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효율성도 또한 배가시킨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온라인 전산망' 실행은 이러한 필연적인 사회변화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이에 본교 온라인 전산망의 실행, 서울-경주간 온라인전산망의 문제, 학술전산망 BITNET에 관한 소개를 세차례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

가 설립된 이후 본교 행정전산망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88년 3월 지금의 CYBER 930-31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고, 89년 각행정부서에서 행정용 PC 1대씩이 설치된다. 또 91년 DISK를 3천MB로 증설하고 OMR2대를 도입, 현재 교원인사관리, 기자재관리,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사업무는 컴퓨터가 맡아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89년부터 성적·출입증명서 등 각종 발급이 서울-경주간 온라인회선 설치를 통해 전산화되었으며 각 행정부서 전산망도 계속 추진중이다. 서울 전산망은 김경주 주임은 "수작업이 필요한 자료정리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미 전산화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경주행정전산망 추진에 주력할데"라고 강조한다.

회의에서 조사한 '대학전산망 총량'자료에 따르면 91년 본교 전산망 예산은 중앙대의 1/4수준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전산망의 업무내용이다. 본교의 경우 행정업무량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높다. 이는 교육, 연구지원업무량 상대적 비중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데, 서울 시내 타대학과 비교하여 중앙의 수준은 전산망화율은 바람직하나 앞으로는 교육, 연구지원 업무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산망예산이 추진중인 역점사업은 도서관 전산망과 LAN(Local Area Network) 시설이다. 도서관 전산망의 경우 운영용 공사를 통해 운영관리·도서관리 전산화를 위한 공간배치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도서관리패키지가 고가인데다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유효성이 수천만원에 달해 실용화 이후에도 유지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서관관리용을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도 추진중인데 단국대처럼 바코드(Bar Code)를 이용한 통제시스템이 예산안 확보

되던 곧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내 모든 컴퓨터를 연결, 중앙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컴퓨터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LAN은 전산화율을 이용한 다이얼 모뎀을 사용, 실용화할 수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다른 대학상황을 고려해 유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정보화기기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헌기 원실화 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LAN을 실용화하고 이후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온라인 전산망의 문제는 프로그램 부재가 아니다.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기기구입과 교재등의 지원이 문제다. 다시말해 변화하는 정보통신시대에 대응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전산망 추진사업 예산의 확보가 해결해야 할 1차적 문제로 지적된다. 또 국내대학 중 본교와의 거리가 가장 먼 본교로서 캠퍼스 네트워크의 행정업무 서울 캠퍼스와 어떻게 연계시키고 신속히 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연기를 결의하며

안녕하십니까? 일만 학우 여러분!

어느덧 92년을 정리하고 93년 학생회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고민과 열띤 토론 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92년 권력 재편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은 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 학도들의 학생회가 사회의 민주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한 다고 했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고 학생회의 조력 기구로서의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제24대 총학생회 선거를 총학생회칙 95조, 105조 1항과 107조 7항에 의거하여 93년 3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 총학생회 선거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학생회의 이완과 미비 우리는 기존의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학생들의 건부들이 선거운동원들로 전락하고, 학생회의 모든 활동이 미비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대선은 물론 11월에 총학생회 선거를 강행한다면, 대선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극히 소극적 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회 선거를 총학생회 산하 총대의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 2) 총학생회의 공백은 비상체제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총학생회 선거를 내년 3월로 연기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9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공백기간은 비상 총학생회 체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상총학생회체제란 총대의원회의 의장을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로 구성한다.

위와 같은 우리의 결정이 학생회 강화와 민주운동 진영의 승리로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2년 9월17일

제24대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위원 명단

국문과	4학년	이 선 주	선학과	4학년	최 중 현	국문과	3학년	조 대 영
경제학과	4학년	박 우 상	법학과	4학년	안 인 식	국문과	4학년	박 종 일
경제학과	4학년	배 연 성	컴퓨터	4학년	이 성 우	국문과	4학년	이 종 신
언어과	3학년	남 동 우	무예	3학년	김 동 우	경의과	3학년	김 영 식
논학과	4학년	박 윤 석	물리	3학년	김 지 준	법학과	3학년	백 승 훈
인철과	2학년	최 정 현	통계	3학년	김 중 권	농생과	4학년	심 준 보
행정학과	3학년	김 도 수						

(이상 총20명)

수습선발공고

본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는 아래와 같이 수습기자 선발합니다. 대학원론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 격: 92학번 신입생
- △전형방법: 1차 영어작문, 독해, 문법, 국어논술
- 2차-면접
- △일 시: 1992년 9월 25일 오후 5시 30분
- △장 소: 서울-명진관(A103) 경주-신문사(학생회관내)
- △원서접수: 1992년 9월 25일까지 본사편집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신문사(학생회관)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260-3493 경주: 41-4132)

The Dongguk Post

기해 큰스님 초청 대법회

- 주제: 불교 근본 수행법과 오세
- 일시: 불기 2536년 9월30일 오후6시
- 장소: 정각원

경주 불교도연합회

신·간·안·내

불교와 자연과학

佛敎와自然科學

오형근/조용길/박순달/김성구 공저

집문당

신국판/245쪽/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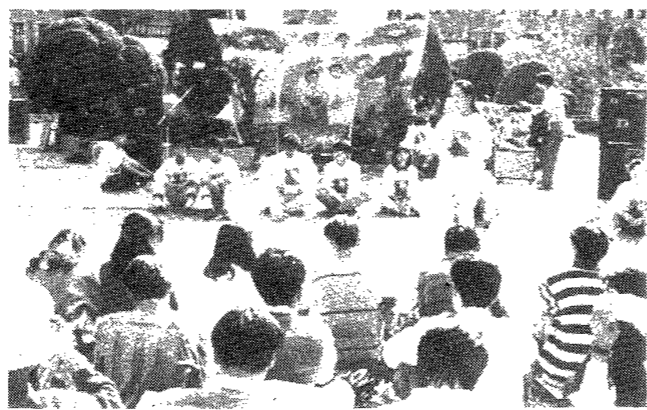
'보여주기식' 학술발표회는 그만!

"빨간 리본이 달린 웨지를 잡아라. 사회자의 구령이 떨어지자 잔디밭을 따라 달리는 학생들.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제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 '웨지잡기놀이'이다. 이 행사는 단순히 노는 데만 그치지 않고 축산대산하 축산물가공공장에서 행을 만드는 공정과 양돈의 방목을 보여주고 있어 학술제와 축전을 함께 치루낸 좋은 예라할 수 있다.

활발한 연구활동 절실

위 행사에서 보듯이 단과대 학술제는 그동안의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발표, 공유하며 학생회간부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단결의 마당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갖는 각 단과대 학술문화제가 요즘 학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술제는 예년의 기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문제를 지적되고 있다. 각 단과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영화상영, 노래경연대회 등은 예전 프로그램과 내

용·형식이 거의 같게 진행됐으며, 그나마 단과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한 기획들은 몇몇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과학대 농경제의 제2회 눈높이 영화제이다. 보통의 영화 상영과는 달리 단순히 보여주는 영화보다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준비했다. '굿모닝, 베트남' '시인 케인' 등 영화관람 후 관람태도의 바뀔 이해도 돕게 한다. 또 하나의 예로 문과대 명진학술제중



◇이번 학술제는 각 단과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예년의 기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7개학과 국판'은 문과대학생들 모두가 참가할 가운데 곳을 벌이는 것으로 참가자가 곳을 직접 배를 수도 있어 무속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행사이다. 이 기획들은 학술적으로 보나 호응도로 보나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몇가지 특색있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과대 개별 행사들이 학술제 기간 전후로 집중되기 어려운 점과 학술소모임들의 부진한 활동으로 인한 독자성이 없는 '보여주

기식' 학술발표회의 문제는 여전히 학생회 간부들의 기획행사로 전락할 여지를 남긴다. 사범대 학원축제의 경우처럼 각과행사를 학술제 기간 전후로 집중시켜 행사의 단조로움과 대성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과대학술제의 취지이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단과대만의 특색있는 행사가

기획되어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행사의 뒤를 찾는 답보된 행태가 아닌 새로운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단과대 학술제가 단순히 1년사업의 요식행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특성을 지닌 기획을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자재대여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학내 전문기구단체의 구성 또한 필요하다. <송>

■ 자원재활용운동에 참여합시다

최근들어 환경오염과 공해추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활용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학생복지위원회(또는 인권복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시하고 있는데, 70·80%의 높은 수거율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는 종이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대 인복위는 단과대 학자추와 연대해 종이류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1회 수거량이 5백kg으로 이익금이 2만5천원에 달

시 이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재생종이나 보조종이, 원고지, 휴지 등을 재활용할 수 있다. 경제대의 경우 홍보활동화를 위해 대동제기간에 폐지와 재활용공제의 교환을 권장중이다. 이 운동의 목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환경보호와 절약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함으

하루 종이컵소비량 1만3천... 휴지84개

학생회 강화-학생운동 활성화 기반

자원재활용운동이란, 말 그대로 무심코 버려지는 폐휴지나 일회용 종이컵, 캔류, 병류를 분리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여름방학 학복위 사업계획안을 내놓았으나 아직 초기단계이다. 이는 분리수거에 있는 각 쓰레기통에 부착한 '분리수거'라는 표시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로써 학생회를 강화하고 학생운동을 활성화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주체의 부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과, 동아리마다 1인 이상의 주체가 필요한데, 학생들 스스로 느끼지 않는 한 이 운동 또한 여의없이 '형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기존 학복위의 사업이 우리옷 입기, 전통차 마시기, 전통무예 익히기 등 학내 행사에서 보여주기식의 일시적인 생활문화운동에 치중했다. 자원재활용운동은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의 몸소 실천하는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학복위는 대자보작업과 함께 각 학과마다 분리수거에 대한 선전물을 게시하는 등 홍보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학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바 있는 사범대 학생회, 불대 학생회, 현재 폐건전지수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아리 유네스콘의 연대를 모색중이다.

'구슬이 서민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 본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하루 1만3천여개의 종이컵이 버려지고 있다. 종이컵 1백개면 재생휴지 1개와 교환할 수 있는데...

현재 연세대의 경우 '연세사랑 작은실천 모임'이 주축이 돼 우유팩, 종이컵, 캔류의 분리수거를 실

현제 연세대의 경우 '연세사랑 작은실천 모임'이 주축이 돼 우유팩, 종이컵, 캔류의 분리수거를 실

한편 재활용사업의 이익금은 다

<이경애 기자>

러시아역사 대변하는 크레믈린



◇현재 크레믈린은 그 수려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지금은 최고정무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크레믈린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모스크바 강을 끼고 위치한 크레믈린은 처음 12세기에 유리 플로그우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1238년 이곳은 몽골-달단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1367년에 크레믈린은 1년의 공사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재건된다. 당시 참나무로 이루어졌던 벽은 지금처럼 하얀벽돌로 변화된다. 이반3세의 시대에 이곳은 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1737년, 크레믈린이 남아 있던 모든 목조건물들이 대화재로 인해 소실된다. 그러나 현재 크레믈린은 그 수려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지금은 최고정무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또 하나의 과거 러시아의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아나톨리 리바코프가 소설에서 그렸던 바로 아르바트의 거리다. '아르바트'는 바리의 톱마르르나 뉴욕의 그린위치 빌리지와 같이 예술가들이 작가들의 고향과도 같은 모스크바의 예술과 낭만의 거리이며, 도스토예프스키, 고골리, 차

이코프스키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스탈린은 아르바트 외곽에 있던 대성당을 부수고 가장 큰 사회주의의 마천루를 세우려 했으나 실패했다. 아르바트거리는 북고공으로 단장되었으며, 생동감과 활기가 넘쳐 흐르는 젊은이들의 공간이다.

5일간 모스크바 거리거리를 더듬으면서 그곳 사람들로 부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의 무선택적 흡수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르바트 거리에서 소위 반문화 집단이 생겨나고 불온광장에서는 사람들이 현 정치, 경제에 대해 성토를 하는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사회주의 몰락, 경제 불황, 자본주의 흡수... 이러한 극적인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며, 또한 모스크바 국민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다시 모스크바는 창조적 시대를 만들어 가리라고 기대해 본다.

더불어, 그곳에서 만났던 국적을 상실한 소련동포들을 지켜보면서, 그레도 꾸준히 지켜오는 한국어 사용, 고유종수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낯설어 보이는 까닭은 너무 의외의 것들만 전하는 우리의 그릇된 자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본다.

강민건 <문과대 영문과>

알아들시다 학교 주변 유적

본교가 자리한 곳은 옛부터 북고공이라 하여 '필동(等洞)'으로 불렸다. 남산 밑에 붙어있는 언덕들이 많이 살았던 이곳. 지금은 서울에서도 중심지로 자리잡아 자동차의 물결과 높은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지만 등·하교길에 무심하게 지나치는 유적이 있다.

학교 후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로옆 인도에 조그마한 기념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 남부 낙산방(南部 樂善坊) 덕적골(德積窟)은 임진왜란 때의 영의정 서애(西崖) 유성룡선생이 살던 곳이라 적힌 유성룡 집터 표시. 이외에도 정문으로 나가다 보면 장충동 2가 186-140번지에 위치한 관성포(關聖廟)를 찾을 수 있다. 서울 민속자료 제6호로 지정된 이곳은 옛 서울의 남쪽 군영(軍營)이었던 남영(南營)관하의 사당으로 18세기 화풍으로 그려진 관우상과 그 부인상, 무인상(武人像), 문인상(文人像)이 걸려 있다.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충무로(忠武路)'는 일제시대에 '본정동(本町通)'으로 불리었으나 1946년 한글이름으로 바뀌면서 현재 중구 인현동 1가에서 탄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충무로'라 지어진 것이다. <문화부>



전시회

肉體... 본교 미술학과 장정현으로 오는 27일까지 동구관5층로비 전시실에서 열린다.

시간안내

미륵선전... '미륵선생경' '미륵화상경' '미륵불상'의 미륵삼부경과 심신의 진리를 자세하고 해박한 고구려 유려한 필치로 밝힌 이종익박사의 유교집. 오랫동안 민중의 비원을 대변해온 미륵불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 그 치열한 현장에서 언제나 솟아오르던 미륵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도서출판 문주사·4천5백원>

폐기물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란게 있다. 상위법이 상위법의 조항을 위배했을 경우, 법적 근거는 상위법이 정한 것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법인 헌법보다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일부 권력층의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폭' 탄산을 다녀오지 않아도 우리는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그 법의 위력을 최근 한 의혹사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월호 월간지들은 김낙중 건청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월간지들은 제의한 모든 월간지, 심지어 '월' '발등 진보언론'조차도 사건의 의혹이나 진위여부를 함부로 표현하고 있다. 흔히 '둘러서 말한'지만 무엇보다도 의혹부정성이 사건을 두세바퀴 둘러서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진보언론조차도 40여년동안 헌법 위에 존재했던 그 법의 '중형' 법위를 무시하고 있다. 어쩌면 이 글조차도 그 법의 카멜레온적 유권해석에 의해 남산으로 불려갈 지 모르고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이

카멜레온

적표현을 탐독·소지죄로 심어질 간 가족을 못만날 수도 있다. ▲이 사건을 정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분위기를 '휘어잡기' 위한 전초전이라 분석하기도 하고 국민의 인정심리를 부추기기 위한 선술책 차원이라 지적도 있다. 요즘 부쩍 늘어난 집권객은 어쩌면 이러한 조심스런 문

제의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까. 추석연휴, 민족 최대명절인 그 날 도시 골목골목에 배치된 경찰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여전히 새벽 오모아미 폭주족의 폭음이 운동대를 긴장케 하는데, 시선은 다른 걸 염두에 두는 듯한 지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얼까. ▲올해 초, 독일 나찌시절 한 여류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보기관에 보고했던 감시자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일간지 의신을 통해 발표되자, 이에 경악했던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92년 등장한 '간첩'이나 헌법위에 존재하는 그 '상위법'의 실제에 대해 경악하지 못한다. 후기 산업화사회의 문화는 우리의 시력을 빼앗아 갔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참담한 분단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柄>



21세기 건설문화를 이끄는 휴먼크리에이션

企業樂

인재발굴
인재양성
인재증용

극동건설의 세가지 기쁨, 모두가人材에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人材를 고르는 '人材발굴의 기쁨' 그人材의 능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격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人材증용의 기쁨' 極東建設은 企業樂의 참뜻을 소중히 여기며人材개발주의로 앞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보다 안락하게 極東建設은 휴먼 크리에이션을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알찬 21세기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1993년의 극동인을 찾습니다. 2000년의 세계인을 찾습니다.

21세기 극동인의 무대는 세계- 그 주인공이 될 젊은 의욕을 찾습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의 가능성을 더 들여다보는 미래기업 극동건설에서 귀화의 뜻을 더 크게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집부문	1. 인문계: 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영문학, 출판학 2. 자연계: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환경공학, 도시공학, 전산학
응시자격	1. 93년 2월 28일 현재 대졸예정자 및 기술임가 2.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자. 4. 군복 또는 면제자 5. 성적 및 면학소지자 유해
모집인원	약 100명
전형방법	1차: 인. 학생심사 2차: 외국어시험 3차: 최종면접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영어 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추천서 1부(영어 양식) 4. 자격·면학증서본(소지자에 한함)
서류접수	1. 6부 및 접수: 1992.9.21~9.30 2. 접수처: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613호 (우편번호 100-656) 극동건설(주) 인사부 3. 접수방법: 우편접수 접수

*문의처: 서울 중구 중무로 37가 60-1 극동건설(주) 인사부
TEL: 273-1141, (공화)211-215

極東建設株式會社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중무로 37가 60-1(극동빌딩)
대표전화: 273-1141, FAX: 273-4719